

## 단절의 시간을 다시 연결하다

### RECONNECTING DURING TIMES OF DISCONNECTION

By Robert J. Tamasy

올해의 글로벌 전염병은 여러 방면에 피해를 끼쳤다. 그 중에서도 종종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는 한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때문에 정작 중요한 사적 관계로부터 단절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사교적일테지만, 비록 내향적 성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들과 정기적으로 접촉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한 제약은 우리에게 단절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를 안겨주었다. 현재 우리는 십 년 전엔 불가능했던 방식인 Skype 와 FaceTime, 가장 최근으로는 Zoom 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몇 주 동안 나는 여러 Zoom 회의에 참여했는데 이는 그간 소중한 연락의 상실로 인해 겪었던 그간의 스트레스를 일부 덜어주었다. Zoom 에 대한 첫 경험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었지만, 그 후 이 기술 자원으로 나의 영적 평안함에 필수요소가 되는 친구들 그리고 그룹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가상 회의 도중에 종종 히브리서 10 장 24-25 절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4-25)*

보통 이 구절은 교회 출석과 관련해 인용되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격려와 원동력을 얻게 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에겐 격려가 필요하다. 물론 컴퓨터상의 회의가 면대면 회의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This year’s global pandemic has taken a toll in many ways. One that is sometimes overlooked or underestimated is becoming disconnected from important personal relationships, due to shutdowns and the need for social distancing. Some of us are more sociable than others, but even introverted individuals need regular contact with other people, who help to keep our lives more balanced.

As a result, pandemic restrictions have presented us with a new problem: How to reconnect during times of disconnection. Thankfully, technology has provided some solutions. We can now connect in ways that were not available in decades past, such as Skype, FaceTime, and most recently, Zoom.

In recent weeks I have participated in a number of Zoom meetings; they have alleviated some of my stress associated with the loss of valued contacts. My initial Zoom experience was business-related, but since then this technological resource has enabled me to maintain connections with friends and groups that are vital for my spiritual well-being.

During these virtual meetings, I have often been reminded of the admonition in Hebrews 10:24-25: *“And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Let us not give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Often this passage is applied to church attendance, but any time we can connect with like-minded believers, we can be encouraged and “spurred on.”

We all need encouragement in these challenging times. Meeting electronically certainly cannot replace in-person, face-to-face encounters, but it definitely

유선으로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뉴스 보도는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에 의한 사망자 수에 치중되어 있다. 오랜 기간 혼자 지내게 될 때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거의 다루거나 기록하지 않는다.

고립은 굉장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호 작용이 거의 없는 좁은 장소에 한정되어 생활하는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집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주변을 조금씩 돌아다니는 자유를 갈망한다. 우리에게겐 전환 거리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처한 문제뿐만 아니라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염병에 관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보도에서 우리의 시선을 떼어 놓을 그 무언가 말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과의 가상 회의가 그토록 유익한 이유이다. 잠언 27 장 17 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잠언 27:17)*

우리에게는 친숙한 유대감뿐만 아니라 공통된 사명을 추구하는 과정 중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창조적 분쟁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기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필요성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기술을 통해서든, 직접적 대면을 통해서든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시간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려면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강력히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권면한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이를 연결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나아와 자신과 연결되기를 기다리신다!

surpasses only hearing a voice over a phone. News reports about the coronavirus have concentrated on the numbers of people suffering from the virus and the death toll associated with it. Comparatively little has been said and written about the impact of being alone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Isolation can cause great mental distress, and being restricted in a small area with little social interaction can be extremely stressful. We all desire the freedom to roam a bit, to leave the confines of our homes. We need diversions, especially ones that take our focus off of our problems, as well as the relentless coverage of the seemingly unending pandemic. Too many television programs can take a toll on our mental well-being as social beings caught up in a social distancing dilemma.

This is why virtual meetings, even with just another person, can be so beneficial. Proverbs 27:17 says, *“As iron sharpens another, so one man sharpens another.”* We need not just friendly fellowship, but also the creative friction that comes from people interacting as they pursue a common mission.

During times like these, however, we must never forget how much we need connection with our most important relationship: with God. Being able to connect with other human beings is wonderful, whether it occurs via technology or in person. But I have found nothing can compare to the time I can spend with the Lord and the Word of God.

For those who wonder, “Where can I turn for answers I need to continue living an abundant life that’s meaningful and valued?” I would strongly recommend the Scriptures to find the answers you seek. If you have become disconnected with God, I cannot think of a better time than now to reconnect. In Matthew 11:28, Jesus Christ calls out,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He is waiting for each of us to simply come and connect with Him today!

##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관계 측면에서 코로나 19 전염병의 대유행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평소처럼 친구, 직장동료와 상호작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감, 두려움이 일부 증가했나요?

In terms of relationships, how has the COVID-19 pandemic affected you? Have you found that your stress level, or even feelings of anxiety or fear, have increased in part due to the inability to interact as usual with friends and coworkers?

2. Zoom, FaceTime 또는 Skype 와 같은 통신 기술을 활용해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대면방식을 통한 상호작용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었습니까?

Have you been able to take advantage of communications technology, such as Zoom, FaceTime or Skype, to reach out to people you would like to stay in contact with? If so, what have been the positives – and negatives – of using those resources, especially compared to physical, face-to-face interactions?

3.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전염병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거나, 강제된 사회적 구속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실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했습니까?

How has the impact of the pandemic affected your relationship with God? Have you sensed an increased need to connect with Him, or have the distractions related to enforced social restrictions actually inhibited your relationship with God? Explain your answer.

4.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What benefit have you received – if any – from reading the Bible on a regular basis? What are some obstacles that can make it difficult to read and study the Scriptures on a consistent basis?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시편 1:1-6, 4:1-8, 31:1-4, 19:20, 119:9-16, 전도서 4:9-12, 사도행전 2:42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시편 1:1-6)
-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시편 31:1-4)

-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시편 31:19-20)
-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시편 119:9-16)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9-12)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행 2:42)

- 북미주 KCBMC [www.kcbmc.net](http://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http://www.cbmc.or.kr)